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Effects of Experiences of Elderly Us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their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정영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YoungHee Jeong(sbox6@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부민감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하여 자료 수집으로 설문지 29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75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관이용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 크기($\beta=.14$)보다 간접효과 크기($\beta=.32$)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효과보다 거부민감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차원에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과 거부민감성과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등의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기관이용 노인 |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 거부민감성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experiences of elderly us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their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data collection, 275 of 290 questionnaires, excluding 15 questionnaires with inadequate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PSS and AMOS program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rough the following procedures. The analysis showed that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s,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and rejection sensitivity were higher for the groups of male elderly, higher age, education above college, absence of spouse, and longer institutionalization. The size of indirect effect ($\beta=.32$) was larger than that of direct effect ($\beta=.14$), signifying that the indirect impact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was larger than the impa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the experiences of damage by relational aggression.

With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makes practical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reduce the elderly's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and rejection sensitivity and programs on socio-economic deprivation, etc.

■ keyword : | Elderly Us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s | Relational Aggression Damage Experiences | Rejection Sensitivity |

I. 서론

노인세대가 직면하게 되는 빈곤과 고독, 역할상실, 질병 등은 노인의 4고라고 불릴 만큼 노인 문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빈곤 또는 역할상실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가정 및 개인의 차원을 넘어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활동하는 노인시설 및 기관에서 동료 노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하며, 기관이용 노인들을 양극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1]. 무엇보다 은퇴 이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노인의 경우, 동료노인과의 관계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상실은 실질적인 박탈을 경험하게 한다.

대인관계 상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 상태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발생되므로, 중년층의 급격한 증가가 노인층에 증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노인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노년기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변화흐름, 경기악화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에 의해 불균형과 갈등문제가 부각되는 시기이다[2]. 그 때문에 일련의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노인들의 관계상의 문제와의 관계는 오늘날 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며 실제 점차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3].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기관을 이용하는 동료노인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지난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 사건'은 사회경제적 박탈에 따른 따돌림 경험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4].

노인정을 비롯한 노인 이용기관은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고 함께 모여 여가를 활용, 자기계발을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문제 즉, 기관 내에서 은밀한 따돌림, 무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5].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월은 최소 30년 이상이며 청소년과 달리, 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문제는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잘 드러나지 않아 외부의 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로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다.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문제는 단순히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결국 이러한 피해 경험이 노인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우울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거부민감성이라는 부정적 관계에 대한 민감성의 경로로서 작용하기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기관이용 노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 내 심리적 환경적응에 매우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좌절을 쉽게 경험하게 되며, 심적 불안 증세가 증폭되는데 이러한 증세들이 그대로 노인들에게 투영되어 거부민감성이라는 심리표현을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으로 확대 전이된다면, 이러한 현실에 처한 노인들은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게 되며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사는 불운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우울, 상대적배제 등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 결국, 모든 세대가 당면하게 될 노인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정에 있어 본 논문이 기초자료로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그리고 거부민감성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을 다루기 전 노인의 빈곤이라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경제적 능력이 인간 생존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자인 의·식·주의 부족한 상태[6]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경제적 능력이 다른 개인이나 가족과 비교하여 낮은 상태[7]를 뜻하며, 주관적 빈곤이나 개인이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8]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 선에서의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나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삶에서의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Townsend, P의 연구[9]에서는 박탈(depriv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박탈은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생활수준 또는 안정된 생활수준의 소외 및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에 기초한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8]. 박탈의 개념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로 구분되어 정의되는데,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이 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Townsend, P의 연구[9]에서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다양한 음식의 구할 자원의 결핍, 사회활동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에서 통상적이거나 최소한의 생활조건 및 자원이 결여된 것으로 현대의 빈곤을 이해하고 개념으로 정의하였다[10].

이상의 빈곤과 박탈이라는 개념들이 최근 연구들에서는 사회경제적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전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나 지위, 기타 사회적 자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11-13].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충분한 자원에 대한 결핍의 결과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결핍과 불이익의 현상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8]. 이러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개인에게 소외감과 불만감을 가중시키고 사회계층 간에 갈등의 원인을 증폭시키는 물론,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위험수준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14].

사회적 박탈 영역과 범위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가 노인임에 따라 식생활 박탈, 주거 박탈, 사회보장 박탈, 사회적 박탈, 건강 박탈, 직업 박탈 이상 6가지 유형을 박탈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 중 박탈지표방식은 식생활, 주거시설, 의료 등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빈곤 양태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 등 사회생활에서의 박탈 양태도 확인할 수 있어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퇴직과 수입 감소, 건강 악화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박탈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된다. 은퇴고령자들의 상황에서도 경제 수준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기준이 된다[16].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과 박탈 실태를 확인해 보는 것은 노인 정책 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인의 빈곤을 박탈 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김경혜 외의 연구[17]에서 소득수준, 주거, 사회참여 등 다차원적 측면의 결핍을 측정할 적이 있으나, 연구 대상이 서울시 노인에 한정되어 있다.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박탈수준을 조사한 연구로는 서연숙의 연구[18]가 거의 유일한데, 연령집단별로 박탈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건강·의료 박탈, 취업 박탈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박탈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박탈이 중요한 노인 문제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 실마리로서의 연구가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영

향을 미치게 되는 변인들이 매우 한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빈곤과 왕따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하여 청소년이 아닌 노인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의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정의함에 있어 Townsend, P의 연구[9]에서 정의를 차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김정현 외의 연구[19]에서 사용한 은퇴 이후 경제, 활동, 대인관계, 건강 등의 측면에서 박탈감을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 박탈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노인 정책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관계적 공격성은 다양한 연령대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대인관계 혹은 단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의 청소년들에게서도 발생하고, 회사 조직의 동료 관계에서도 일어나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들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노인에게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은 잘 알려지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며, 입씨름, 모욕, 파벌 등으로 위협하고, 거짓말, 무시하기, 헐뜯하기, 친구관계 조작하기,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음모꾸미기 등 간접적으로 사회적 외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 내포되어있다[21][22].

이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가해자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영역 다툼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사자 혹은 연구자의 확인이 어려운 집단에서의 배제, 공공연한 따돌림 등으로 표현된다[23]. 이렇듯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24], 특히 이전에 수많은 경험을 한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나이를 먹을수록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되어 공격적 행

동에 대한 자신의 위협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간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낸다[25]. 이는 결국, 기관이용 노인 사이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되어 이들의 부정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에서 노인 당사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할 경우, 동료 노인에게 또 다른 공격성의 경향을 나타내는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즉,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거부되었다는 인식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피해 경험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대한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순환적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전체를 와해시키는 상황 초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관계적 공격성에서 특히, 피해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심층 연구하고자 한다.

3. 거부민감성(사회인지·정서적변인)

거부민감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거부에 대해 항상 인식하며 과잉 반응하는 기질이다[26].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불안해하며,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도 거부의 신호로 지각하고 이에 대해 과민하게 경계하여 반응하는 기질을 말한다[27].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되고, 거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핵심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 거부는 개인의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기능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거부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거부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거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높은 불안과 걱정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와 같이 거부에 대해 부적응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Downey, G.의 연구[26]에서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높은 거부민감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부를 불안하게 기대하고 쉽게 인식하며, 거부에 대해 과잉 반응하

는 경향이 있다[28].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경우, 중립적인 상황이나 단서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행동을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도'로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29]. 즉, 거부에 대한 해석이 이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거부 경험에 대한 격정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므로 거부를 당하는 경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하게 커질 때 심적 고통이 확대되는 것이다[30]. 이렇듯 거부에 대해 분노, 적대감, 지지의 철수, 질투 등의 인지-정서적 반응을 보이고, 거부가 예상될 때 자동 반사적으로 불안과 분노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의 핵심 특성이다[26].

즉, 동일한 사회적 박탈 조건에서도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대한 인식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거부를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노인 이용기관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개입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확인을 통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연숙의 연구[18]에서 노인의 박탈 수준 즉,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소득의 결핍상황에서 끝나지 않고, 우울, 건강 등의 다양한 차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본 논문에서 중요한 변수로 상정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종란의 연구[31]에서 빈곤아동의 스트레스가 언어적 공격성과 우회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인 정현희의 연구[33]에서는 유아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빈

곤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홍순혜와 원미순[34]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빈곤여부가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인회 등[35]의 연구에서도 빈곤이 학업성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연구 결과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비록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박탈을 포함한 빈곤과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과 관계적 공격성 연구에 대한 타당도를 일정부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에 관한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거쳐 연구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연구들 중에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심리적 적응문제를 검증한 연구[36-39]들이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적응은 다양한 병리현상을 유발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거부를 전제로 부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심리의 양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은퇴이후 노인의 역할부재와 경제적 빈곤 등을 통해 보다 노인 세대에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박탈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 중 특히 사회경제적 박탈, 즉 빈곤이 거부민감성, 즉, 부정적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함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이후 공동 생활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거부민감성이 높은 노인은 대인관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40], 은밀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보이게 된다.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연구한 국내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거부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친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41], 거부에 민감성을 보이는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 표현의 능력부족으로 관계적 공격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았다[42]. 다시 말해서,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성향은 심각해지며, 특정 친구관계나 대인관계를 해칠 목적으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소외시키거나 당사자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된다[20].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경험을 한 경우,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게 된다[43]. 실제 거부를 경험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44].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로 귀인 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45].

넷째,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수로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라영의 연구[46]에서 정서적 학대와 친구관계 문제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결과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소연 외의 연구[47]에서는 아동의 부모애착과 외로움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부정적 변인 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48-51]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라는 부정적 변수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유추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 가해 경험과의 영향관계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52]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거부민감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노인을 비롯한 성인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단체 생활과 새로운 대인관계 상에 노출되어 거부라는 부정적 감정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에게 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변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중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박탈을 확인하고,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관에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노인에게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거부민감성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매개하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도움을 주기로 한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설문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 구성은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 수정을 한 뒤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은 자기기입식과 연구자가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준 뒤 응답을 받아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월 사이이며 배포된 설문지 29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75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1) 독립변수: 사회경제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박탈감이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분배에서 배제된 상황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이다[53][54]. 사회경제적 박탈감 측정은 김정현 외 연구[19]에서 사용한 5문항으로 은퇴 이후 경제, 활동, 대인관계, 건강 등의 측면에서 박탈감을 질 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박탈감 5문항은 모두 합산하여 사용되었으며,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5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829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어느 집단에서 한 대상을 고의로 빼 버린 다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 타인의 상호작용에 해를 가 하는 행동이다[55].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은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은 Hester T. 연구[52]에서 사용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척도’(Questionnaire on victim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기관이용 노인들은 나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다,’ ‘기관이용 노인들은 내 뒤에서 나를 비웃는다,’ ‘기관이용 노인들은 그들이 하는 친목모임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 ‘기관이용 노인들은 식사시간에 내가 앉아 있는 식탁에 앉지 않고 피한다,’ 등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은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970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매개변수: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심각하고 장기적인 거부에 노출되었을 때 발달되는 것으로,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27]. 거부민감성 측정은 박명진 외 연구[56]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한 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문항구성은 ‘기관이용 노인들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기관이용 노인에게 배신당하거나 소외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하다,’ ‘기관이용 노인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으로 화가 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7문항은 전체 합산하여 사용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961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배우자유무, 월평균수입, 기관이용기간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측정되었으며, 연령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배우자 ‘유’(1), ‘무’(0)이며, 월평균수입은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2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기관이용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편집과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들의 특성은 기술통계, 상관분석,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요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호배타성 및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이르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은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이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CFI, TLI, GFI, RMR, RMSEA 값을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1000번을 통해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함께 p값을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69(25.1)	월 평균 수입	30만원 미만 63(22.9)
	여 206(74.9)		50만원미만 30(10.9)
연령	60대 119(43.3)	(M=112.83, ±108.05)	100만원미만 45(16.4)
	70대 121(44.0)		200만원 미만 78(28.4)
	80대 이상 35(12.7)		200만원 이상 59(21.5)
배우자 유무	유 142(51.6)	기간 이용 기간	1년 미만 51(18.5)
	무 133(48.4)		3년 미만 76(27.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2(33.5)	기간 이용 기간	6년 미만 78(28.4)
	고졸 138(50.2)		6년 이상 70(25.5)
	대졸 이상 45(16.4)		

2.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규성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변수 간 상호배타성과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의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65(±.74)로 조사대상자의 퇴직 이후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중간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2.04(±.88)로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피해 경험은 평균 1.90(±.81)로 피해 경

험이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포에서는 주요변수의 왜도 값은 -.31에서 .66, 첨도 값은 -.48에서 -1.01 으로 정규성을 의심할 수 있는 왜도 3, 첨도 7이하로 나타나 주요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상관분석결과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의 상관계수는 상호배타성을 의심할 수 있는 .80이하인 .4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박탈감의 상관계수는 .75(p<.001), 거부민감성의 상관계수는 .48(p<.001)로 나타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상관성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구분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1	.49***	.75***
거부민감성		1	.48***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			1
M(SD)	2.65(.74)	2.04(.88)	1.90(.81)
왜도/첨도	-.31/-.52	.37/-1.01	.66/-1.48

***p<.001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1)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주요변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성별에서 보면 남자의 사회경제적 박탈감(M=2.99)은 여자(M=2.53)보다 유의하게 높고(t=4.20, p<.001), 거부민감성(t=3.38, p<.01)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t=3.22, p<.01)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성별	N	M	SD	t
사회경제적 박탈감	남	69	2.99	.82	4.20***
	여	206	2.53	.68	
거부민감성	남	69	2.38	1.02	3.38**
	여	206	1.92	.81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	남	69	2.19	.90	3.22**
	여	206	1.80	.76	

***p<.001, **p<.01

(2) 연령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연령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70대가 60대에 비해, 80대가 70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유의하게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F=6.84, p<.01)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서는 80대가 60대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F=5.01, p<.01)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거부민감성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사회경제적 박탈감,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 연령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연령	N	M	SD	F	Scheffe
사회 경제적 박탈감	60대	119	2.46	.70	6.84**	70대)60대 80대)70대
	70대	121	2.78	.75		
	80대	35	2.81	.72		
	전체	275	2.65	.74		
거부민감성	60대	119	1.95	.80	1.08	
	70대	121	2.08	.95		
	80대	35	2.17	.92		
	전체	275	2.04	.88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60대	119	1.74	.67	5.01**	80대)60대
	70대	121	1.97	.87		
	80대	35	2.18	.92		
	전체	275	1.90	.81		

**p<.01

(3) 최종학력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최종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F=7.02, p<.001), 거부민감성에서도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집단 및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3.87, p<.001).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서도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집단 및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8.23, p<.001). 전반적으로 대졸이상 집단이 중졸이하 및 고졸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5. 최종학력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연령	N	M	SD	F	Scheffe
사회 경제적 박탈감	중졸이하 ^a	92	2.65	.67	7.02**	c)b
	고졸 ^b	138	2.52	.70		
	대졸이상 ^c	45	2.99	.87		
	전체	275	2.65	.74		
거부민감성	중졸이하 ^a	92	1.84	.84	13.87***	c)a c)b
	고졸 ^b	138	1.97	.82		
	대졸이상 ^c	45	2.63	.94		
	전체	275	2.04	.88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중졸이하 ^a	92	1.81	.84	8.23***	c)a c)b
	고졸 ^b	138	1.81	.73		
	대졸이상 ^c	45	2.34	.86		
	전체	275	1.90	.81		

***p<.001, **p<.01

(4) 배우자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있는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서는 배우자 ‘유’, ‘무’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50, p<.05).

표 6.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배우자	N	M	SD	t
사회 경제적 박탈감	무	133	2.69	.76	.86
	유	142	2.61	.72	
거부민감성	무	133	2.09	.88	.92
	유	144	1.99	.89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무	133	2.02	.88	2.50*
	유	144	1.78	.72	

*p<.05

(5) 월평균수입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월평균수입에서는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0만원 이상’ 집단은 ‘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거부민감성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6.47, p<.001), ‘200만원 이상’ 집단이 ‘3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F=2.65, p<.05). 사회경제적 박탈감에서는 월평균수입이 낮은 집단의 평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월평균수입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난 반면,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은 월 평균수입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7. 월평균수입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월평균수입	N	M	SD	F	Scheffe
사회 경제적 박탈감	30만원 미만	63	2.66	.72	.08	
	50만원 미만	30	2.68	.59		
	100만원 미만	45	2.60	.79		
	200만원 미만	78	2.66	.70		
	200만원 이상	59	2.62	.86		
전체	275	2.65	.74			
거부민감성	30만원 미만 ^a	63	1.69	.72	6.47 ***	e)a e)b
	50만원 미만 ^b	30	1.74	.76		
	100만원 미만 ^c	45	2.15	.87		
	200만원 미만 ^d	78	20.8	.87		
	200만원 이상 ^e	59	2.41	.96		
전체	275	2.04	.88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30만원 미만 ^a	63	1.65	.63	2.65 *	e)a
	50만원 미만 ^b	30	1.81	.82		
	100만원 미만 ^c	45	1.93	.90		
	200만원 미만 ^d	78	1.97	.77		
	200만원 이상 ^e	59	2.09	.91		
전체	275	1.90	.81			

*** $p < .001$, * $p < .05$

(6) 기관 이용기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기관이용기간별 주요변수의 특성을 보면, '6년 이상' 집단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1년 미만'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F=4.00$, $p < .01$), '3년 이상 ~ 6년 미만' 집단과 '6년 이상' 집단이 '1년 미만' 집단에

표 8. 기관 이용기간에 따른 주요변수 평균차이

	이용 기간	N	M	SD	F	Scheffe
사회 경제적 박탈 경험	1년미만 ^a	51	2.37	.69	4.00**	d)a
	3년미만 ^b	76	2.60	.84		
	6년미만 ^c	78	2.73	.67		
	6년이상 ^d	70	2.81	.68		
	전체	275	2.65	.74		
거부민감성	1년미만 ^a	51	1.68	.67	4.86**	c)a d)a
	3년미만 ^b	76	1.98	.91		
	6년미만 ^c	78	2.12	.88		
	6년이상 ^d	70	2.26	.92		
	전체	275	2.04	.88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1년미만 ^a	51	1.56	.61	5.44**	c)a d)a
	3년미만 ^b	76	1.81	.81		
	6년미만 ^c	78	2.02	.76		
	6년이상 ^d	70	2.09	.91		
	전체	275	1.90	.81		

** $p < .01$

비해 거부민감성($F=4.86$, $p < .01$)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F=5.44$, $p < .01$)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관이용기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감,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경로분석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p)	TLI	CFI	GFI	RMR	RMSEA
경로모형	45.98	6(.00)	.98	.99	.99	.02	.03

[표 10]과 [그림 1]은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 $p < .01$). 또한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49$, $p < .001$),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표 10.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B	S.E.	β	C.R.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15	.05	.14	2.94**
사회경제적 박탈감	→ 거부민감성	.59	.06	.49	9.34***
거부민감성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59	.04	.65	13.72***
성별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02	.09	.01	.25
연령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01	.01	.08	1.75
최종학력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02	.06	.01	.27
배우자유무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15	.07	-.09	-2.27*
평균월수입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02	.02	.03	.67
기관이용 기간	→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04	.03	.05	1.42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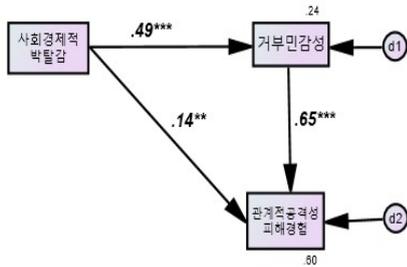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p<.001, **p<.01 그림에는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제시하지 않음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65, p<.001$). 이는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으며,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유의하게 더 높고,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감→거부민감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의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크기(β)는 .32로 boot(β) 하한값(.24)과 상한값(.39)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p값 또한 .010($p<.05$)으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거부민감성 간접효과크기 및 유의성 검증

경로	b(β)	Boot CL b(β)	p
사회경제적 박탈감→거부민감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35(.32)*	.26~.42 (.24~.39)	.010

*p<.05

이상의 경로모형의 결과를 정리하면,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부민감성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접효과 크기($\beta=.14$)보다 간접효과 크기($\beta=.32$)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박탈감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효과보다 거부민감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거부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관 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의 특성은 어떠한가? 는 우선, 성별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연령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최종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있는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다섯째, 월평균수입에서는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에서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기관 이용 기간별 주요변수의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 기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 거부민감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으며,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김진선의 연구[30]와 Gibbs, J의 연구[32]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프로그램으로의 접근과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거부민감성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결과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이는 김진현 외 연구[39]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일상적인 거부 상황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자신이 관계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는 민감함이 피해의식에까지 연결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이들이 인식을 인정하고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외부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4. 거부민감성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매개하는가? 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거부민감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의 경로에서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부민감성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거부민감성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공격성을 연결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검증한 것으로 노인문제의 중요한 해결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낮추기 위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된 기관 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기관의 개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 이용 노인 중 은퇴를 경험한 남자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노인 이전의 시기에 경험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이라는 은퇴의 경험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후 노년기에 대한 심리적인 대처방안으로 감각이 떨어지고 줄어든 수입에 대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등 기관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

활동의 근간을 마련하여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높은 연령의 노인 및 기관 이용을 오래한 노인들이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높게 느낀다는 점에서 기관의 세심한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반적 수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갈 곳이 없어서 기관을 찾는 경우, 이들의 자존감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겪는 관계적 스트레스 지수 또한 높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관의 일련의 노력에 대하여 정책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관 차원에서의 노력으로는 각 프로그램의 장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예산 확보라는 기본적인 틀에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기관은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사회복지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는 100세 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늘어난 은퇴 후 시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문제를 단지, 임시적인 문제로만 판단하여, 위기 개입 형태만을 떠다면, 결국, 모든 세대가 겪게 되는 노인문제는 그 세대마다 또 다른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당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됨은 물론, 더불어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실제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당사자 본인의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타인의 거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관에

서 노인들 사이의 긍정적인 연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인 인성 함양프로그램 등을 보다 노인 개개인에게 맞추어 개별화하여 적용하고, 이를 실천 방안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관이용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기관이용 저소득 노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1], 거부민감성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을 낮춤으로서 노인들 간에 발생하는 괴롭힘 같은 부적 관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혹은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각 개별 노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의 실제 생활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서, 타인, 즉, 다른 동료 노인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사회복지사의 배려로 상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을 낮추기 위한 학문적 접근과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과 거부민감성을 낮추기 위한 노인 이용기관의 개입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노인의 거주 도시의 형태 등이 본 연구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노인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한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이 가해 경험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57].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이 가해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순환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전국의 노인 이용기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이재경, 이래혁,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과 음주·자이존중감과 가족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7, pp.553-565, 2016.

[2] 박재홍, “중년기 성인남성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3권, 제1-20호, 2012.

[3] 노상현, “빈곤과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논총, 제33권, pp.173-202, 2015.

[4] 헤럴드 경제, “농약사이다 할머니 구속, 화투 패 집어던지고 심하게 싸워,” 2015.8.13.

[5] mbc 리얼 스토리 눈, “노인정 따돌림 외톨이가 된 할머니,” 2014.11.12.

[6] 김준현, *우리 경제의 어려움, 어디에서 오는가*, 열린 전북, 2005.

[7] 이상록, 김형관, “빈곤원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379-403, 2014.

[8] 허중호, 조영태, 권순만,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44권, 제2호, pp.93-120, 2010.

[9] P. Townsend,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New York: Penguin Books, 1979.

[10] 엄순옥,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갈등의 매개효과와 종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 이웅, 임란,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4호, pp.93-122, 2014.

[12]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3호, pp.42-70, 2015.

[13] 김안나, 최승아, “박탈과 우울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3권, 제1호, pp.81-105, 2016.

[14] 황선재,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 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1호, pp.5-25, 2015.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2010.
- [16] 정우진, 상호 제공적 가족 내 지지와 가족 외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7] 김경혜, 윤민석, 이미라, 서울시 노인 빈곤실태의 다차원적 진단과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3.
- [18] 서연숙,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제35권, 제1호, pp.99-117, 2015.
- [19] 김정현, 이민준, 박미영, 문수재, “한국남성의 식생활 형태에 관한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11권, 제5호, pp.621-634, 1996.
- [20] N. R. Crick and J. K. Grotpe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제66권, pp.710-722, 1995.
- [21] 이희경, 박미란, 이지연,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 애착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제22권, 제3호, pp.207-229, 2013.
- [22] 심은신, 이동훈,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 동조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1-42, 2011.
- [23] 이진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최우영, 허유성,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존성,”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171-196, 2008.
- [25] Craig and Pepler, “Identifying and targeting risk for involvement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제48권, pp.577-582, 2003.
- [26] G. Downey and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제70권, 제6호, pp.13-27, 1996.
- [27] G. Downey and S. I. Feldman,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 Psychopathol, 제6권, 제1호, pp.231-247, 1994.
- [28] S. R. Levy, O. Ayduk, and G. Downey,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s.) Interpersonal Rejection, 2001.
- [29] K. A. Dodge and D. R. Someberg,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제58권, 제1호, pp.213-224, 1987.
- [30] 김진선,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31] 박종란, 빈곤아동의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2] J. T. Gibbs, “Assessment of depression in urban adolescent females: implication for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1986.
- [33] 정현희, 최경순, “어머니의 언어 통제 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제35권, 제5호, pp.163-175, 1997.
- [34] 홍순혜, 원미순, “아동의 강점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0호, pp.95-116, 2013.
- [35]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중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57-79, 2009.
- [36] J. F. Huang, R. H. Wong, C. C. Chen, I. F. Mao,

- C. C. Huang, W. H. Chang, and L. Wang, "Trajectory of depression symptoms and related factors in later life: A population bas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제133권, pp.409-508, 2011.
- [37] H. Litw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mericans: what matters mos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제23권, 제6호, pp.930-940, 2011.
- [38] 박능후, 김재희, 장준명, "개인의 객관적 배제와 주관적 배제 격차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2호, pp.185-218, 2016.
- [39] 김진현, 한지나, "축척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년기 우울케속에 미치는 영향: 축척된 불평등 이론의 검증," *노인복지연구*, 제65권, pp.207-23, 2014.
- [40] O. Ayduk, R. Mendoza-Denton, W. Mischel, G. Downey, P. K. Peake, and M. Rodriguez,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제79권, 제5호, pp.776-792, 2000.
- [41] 박우람, 홍상황,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친구관계의 질의 관계: 절대감,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제26권, 제2호, pp.285-302, 2015.
- [42] 김선미, 홍상황,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제13권, 제4호, pp.409-429, 2014.
- [43] 김나경, 양난미,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7권, 제2호, pp.217-238, 2016.
- [44] R. Romero-Canyas, G. Downey, K. Bernson, O. Ayduk, and N. Jan Kang,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제78권, 제1호, pp.119-148, 2010.
- [45] 홍상황, 이경연, "또래 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283-315, 2013.
- [46] 배라영, *정서적 학대, 친구관계 문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47] 박소연, 진미경, "아동의 부모애착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제16권, 제4호, pp.381-395, 2013.
- [48] 이유정,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49] 강혜영, *행동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50] 차혜련,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51] 안수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차각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52] T. Hester, S. Ron, and W. Gerben, "Resident to resident relational agg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Aging & Mental Health*, 제15권, 제1호, pp.59-67, 2011.
- [53] R. Folger, "Reformulating the preconditions of resentment: A referent cognition model. In J.C. Masters and W. P. Smith(Eds), *social comparison, social justice, and relative depriv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183-215, 1987.
- [54] 채정민, 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제1호, pp.41-63, 2004.
- [55] Bjorkqvist, Lagerspetz and Kaukiainen, "Do

girls manipulate and boys fight? Development trends in regard to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제18권, pp.117-127, 1992.

[56] 박명진, 양난미,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015.

[57] 이현주, 권수정, “초등학생의 따돌림 경험이 따돌림 동조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pp.205-214, 2014.

저 자 소 개

정 영 희(YoungHee Jeong)

정회원



- 2008년 8월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졸업)
- 2018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박사 수료)
- 2014년 5월 24일 ~ 현재 : 기장

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재직

<관심분야> : 노인복지(노노학대, 노인정책, 노인 인간관계 문제, 상담), 청소년복지(자원봉사, 위기청소년 정서지원)